

만해대상 수상자 소감



▶ 포교부문-남버린 엔호바아트(몽골공화국 대통령)
저의 국제포교활동을 높이 평가해 이런 상을 주고 세계적 인 불자로 선정해준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평화부문-김지하(시인)
박정희 독재의 절정이었던 유신현상이 공포된 바로 그 다음 날 백담사 골짜기 산장 한 귀퉁이 방에서 밤새 타는 촛불을 보며 여름을 보냈습니다.

▶ 문학부문-로버트 핀스키(미국 계관시인)
만해대상 수상자가 됐다는 소식을 데이비드 맥켄 교수로부터 연락받고 대단히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문학부문-황동규(시인)
10시간이 넘게 걸려서 만해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려움을 끝에 간신히 도착했지만 시상식이 끝나버려 허탈했습니다.

▶ 실천부문-박원순(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만해대상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학술부문-권영민(문학평론가·서울대 교수)
저는 만해 스님이 태어났던 충청도 홍성 그 마을에 가까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인연 때문인지 만해 스님의 사상을 가슴 속에 담아두고 살아왔습니다.

만해의 '님'...세계의 '님'으로

2006 만해축전 성황

한국 대표 시인 한자리에
현대시조 100주년 축제만하당

현대시·시조의 구분을 떠나 한국의 내로라 하는 시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인이 되고 자 시인학교에 등록한 학생과 일반인들을 비롯해, 청소년 백일장에 참가한 청소년들과 새내기 시인, 원로 시인 할 것 없이 '만해'의 이름 아래 모여들었다.

8월 11~13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 2006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는 울려퍼져 열 돌을 맞은 만해대상 시상식.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2일 시상식에 앞서 "만해 한용운 스님은 정신적 지주이자 그의 개혁사상은 본받고 의지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만해대상이 열 돌을 맞아 온 국민이 하나 돼서 만해 스님의 사상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후 5시 입재식으로 막을 올린 제10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은 한결같이 '만해



세계민족시대회는 한국·중국·일본·이탈리아 등의 전통시를 알리고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다.

스님의 정신이 한국불교 나아가 세계불교를 관통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기뻐했다.

이에 앞서 열린 '현대시조 100년 고유제'에서 이근배 세계민족시대회 집행위원장은 "현대시조 100년을 맞아 시조의 새로운 천 년을 여는 대장정에 나서고자 하며 겨레시인 시조가 나라 인품에 천둥소리로 울려 퍼질 그 날이 오게 하겠다"고 고유문을 낭독했다.

13일 시조시인들이 중심이 돼 기획한 '현대시조100년 세계민족시대회-세계민족시포럼'에서는 김용직 명예교수(서울대·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의 발제강연 '시조, 그 국민시가 양식으로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시작으로, 나카니

시 스무 학장(中西進·교토시립예술대학의 '일본 전통시 와카(和歌)란 무엇인가', 빈센자 두르소 교수(이태리 베니스 까 포스카리대학의 '이태리는 어떻게 소넷(Sonnet)을 낳았는가', 문행복 교수(국립대만사법대학의 '중국 전통시의 깊고 오랜 흐름', 김해룡 교수(연변대학 조선-한국문학원의 '연변의 조선족작가들은 왜 시조를 쓰는가', 박철희 명예교수(서강대의 '현대시조 100년 무엇이 문제인가' 등이 발표됐다.

2006만해축전에서는 '현대시조 100년 세계민족시대회 전야음악제' '만해 전국 음악콩쿠르 수상자 연주 및 시상' '대중놀이마당' '만해 시인학교' '2006 통일시전' '시조문학 심포지엄1·2' '불교문학 심포지엄' '전국고교생 백일장' '문화과 종교 심포지엄' '님의 침묵 서예대전 시상식' '제4회 유심작품상 유심신인문학상 격의시단 시상식' '한국문학 심포지엄' '국제문학 심포지엄' 등이 열렸다.

8월 23~24일에는 한국문인협회의 '한국문학 심포지엄', 26일에는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비평분과위원회의 '민족문학 심포지엄', 현대시조 100년 작곡 발표회(KBS홀) 등이 열린다.

인제/글·사진=김지연 기자

정완영 시비 만해마을에 제막

미수를 넘긴 원로 정완영 시조시인의 시비(詩碑)가 8월 12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막식을 갖고 단아한 자태를 드러냈다. 시비에 새겨진 '분이네 살구나루'는 중학교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동심의 세계를 아름답게 담아 낸 시조다.



이날 시비 제막식에는 오현 스님(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 이근배 시인 이지열 교수(경기도) 등 100여 문인들이 동참해 축하했다. 이번 시비 제막식에 맞춰 정완영시조전집(토방 계도)도 출간됐다.

정완영 시인의 대표작으로는 '산거닐기' '수수편편', 심정전의 서사구조를 시조 속에 녹여낸 '시암의 봄' 등이 있다.

김지연 기자



제10회 만해대상 시상식 후 기념촬영한 시상자와 수상자들. 왼쪽부터 낙산사 주지 정법 스님, 이은영 국회의원, 이수성 만해대상상사위원장, 박삼태 인제군수, 김진선 강원도지사,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출중 오는 몽골 대통령 영부인, 김지하 시인, 박원순 변호사, 권영민 서울대 교수와 부인 김옥수씨.

'인간 한용운'으로 '만해'를 읽는다

소설가 이채형씨 <아아 님은 가지 않았습디다> 내보

8월은 만해 스님의 탄생달이기도 하지만 8월은 더욱 특별했다. 만해축전이 '현대시조 100년 세계민족시대회'를 중심으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렸고 한국독서사회회는 '8월의 독서인'으로 만해 스님을 선정했다.

은 것도 8월의 쾌거다. 증견 소설가 이채형 씨가 수년간 만해 스님의 체취를 더듬은 결과물을 전기소설 <아아 님은 가지 않았습디다>(문학나무재 1만원)로 내놓은 것이다.



자연스럽게 녹인 것이 이채형의 담백한 입담이다.

소설은 만해 스님의 청년기로부터 시작된다. 기우는 국운을 개탄하던 청년이 입산을 결행하고 동학 봉기 이후 홍주 의병에 가담해 생을 마친 아버지와 형의 시신을 손수 거두기까지, 오세암에서의 수도생활을 겪고 세계를 무대로 만행을 떠났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뼈저린 체험, 다시 돌아와 오세암에서의 용맹정진을 통해 한 소식을 듣고 오

소송을 인가받는 과정, 소설은 이렇게 만해 스님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짜여 66세를 맞는 여름 심우장에서 입적하기까지의 시간을 촘촘하게 엮어 낸다. 무엇보다 이 소설을 재미있게 하는 것은 춘성 스님과 여연호 보살의 등장이다. 선이 굵은 만해 스님의 삶에 상좌 춘성 스님과 여연호 보살의 극진한 시봉은 만해 스님이 구도자와 시인과 지사의 삶을 살게 한 또다른 힘이 었기 때문. 설악산 신홍사 회주 오현 스님의 추천사와 소설가 윤후명 황충상씨의 발문, 부록으로 엮은 만해 스님의 일화들도 <아아 님은 가지 않았습디다>의 가치를 진철히 채겨 주고 있다.

임연태 기자 yilm@buddhapia.com

화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하다!! 3회 신비와 영험의 치우천황(붉은악마) 영험도량 지장사 출현



소승이 그 동안 치우신의 기도를 통해 얻은 놀라운, 영험을 많은 중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치우천황을 세상에 공개하니 치우신의 영험을 직접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치우천황 (붉은악마)? 현재 SBS 방송중인 연개소문이나 MBC 주몽에 나오는 전쟁의 신, 군신으로서 그자체로 승리를 상징 합니다. 한국팀의 2002년 월드컵 첫경기인 폴란드와의 결전이 있기전 치우신께 정성껏 제를 올려 치우천황의 도술이 고강하여 한국팀을 돕고져 안개의 조화를 부려 한국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절망속에 빠진 신도분이 땅과집이 매매가 되지않아 법당의 신장상을 친견하고 놀라면서 스님 머리관이 붉은악마 치우천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연개소문에 나오는 치우천황 입니디. 스님은 시절인연이 몸을 깨닫고 치우신의 신비한 영험을 얻고져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정진중 치우신이 꿈에 선봉 되면서 집과 땅이 매매가 되었고 이후 많은 기도가성취되고 있습니다. 스님은 치우신의 고강한 도술이 스님을 돕고 있는것을 깨닫고 절망속에 빠져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보고 굿을해도 되는일이없고 기도영험을 못보신분 치우신을 친견하고 신비의 영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위치: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4번출구 하이마트앞 지장사 치우천황을 멀리서 친견 못하시는분들을 위하여 지장사 치우천황의 기를 받은 축자와 스님이 치우신께 올린 기도비법이 담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치우도는 소원성취 입니디 소강 하시면 큰 영험을 보실것입니다.
• 축자크기 : (가로 50cm×세로×120cm) • 시주금 : 10만원
• 입금계좌 : 조흥은행 962-04-302262
• 문의: 02)930-6052 지장사
※ 입사생은 치우신께 꼭 막걸리 발원을 하십시오 치우천황은 그자체로 승리 입니디.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 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 지금 주문하시면 5일후에 도착합니다

正宇 천연무공해 황토방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요사채를 천연 순100% 황토방으로 장엄하게 불사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정우 천연황토는 화학물질, 석회석, 시멘트, 본드 등 일체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순100% 천연황토만을 사용하며, 묻어 나가거나 갈라짐, 깨어짐, 들뜸 현상이 없어 벽지나 장판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순 100% 황토가 아니면 시공비 전액을 받지 않습니다.

고건축일반건축특기과 황토방인테리어시공 전문
正宇文化財建築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96번지
전화 062)226-4445
팩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이메일 bestceo12@naver.com